

# 우리는 예수사람 이에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기도회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말씀선포  
기도회  
봉현송  
축도  
광고  
축하순서

슥 4:1-14  
일이 되는 방식

김태영 목사  
Shem과 함께  
박은미 자매  
다같이  
김태영 목사  
다같이  
김태영 목사  
다같이  
신민경 자매

## 청년부를 섬기는 사람들

지도 김태영 목사      부장 이혁주 장로  
회장 이수연 자매      부회장 문정환 형제

##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 대표기도 및 봉사순

10월 21일	박미리 자매	원서희 자매
10월 28일	전상룡 형제	이수연 자매
11월 04일	박은미 자매	최정현 형제
11월 11일	최정현 형제	박은미 자매

## Shem과 함께 배우는 새로운 찬양!

### 아버지의 마음

Words & Music by  
심형진

### 모임시간 안내

-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청년부실
- ↳ 청년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시/청년부 교사실
- ↳ 찬양팀 모임      토요일 오전 10시/청년부실
- ↳ 문서팀 모임      토요일 오후 5시/청년부실
- ↳ F.C 예배 모임      토요일 오전 (시간은 때에 따라)
- ↳ G.S 선교팀 모임      수요일 오후 8시 30분

## 문정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광고들!

1. 2007 비전축제 다음주까지 이어집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다음 주도 동일하게 토요일 1시

중보기도 후 출발합니다.

2. 순장님들은 순 보고서 꼭 작성해주세요~

3. 예배 후 5시에 청년부실에서

비전 준비 모임 있습니다.

## 주보를 만드는 사람들

팀장: 안미옥

팀원: 이주호, 전은영, 최나영, 송경숙, 윤민홍, 선한용, 박희덕

문서 선교팀 커뮤니티

[www.coram.kr](http://www.coram.kr)

이제 쉽고 편하게! 코람닷케이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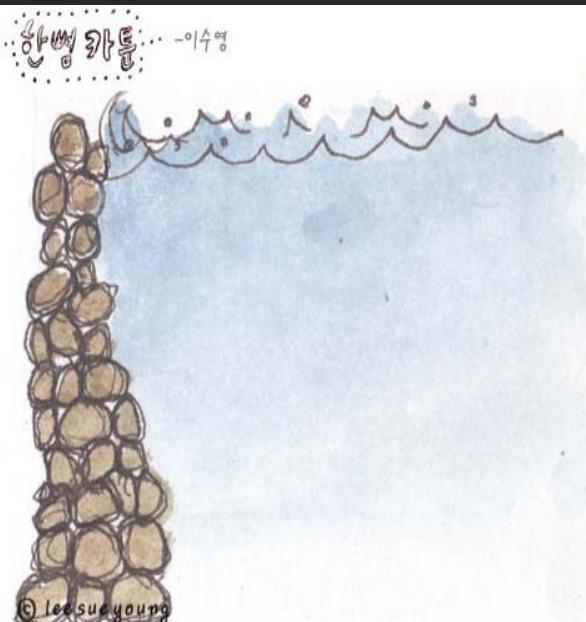
## 비전 축제 특집



1시에 기도회를 하고, 2시 조금 넘어서 노방전도 할 곳으로 향했다. 후암시장 입구 근처에서 교회 청년부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찬양을 했다. 3명 정도가 1조가 되어서 각각 흘어져서 행동을 하였다. 각각 전도를 마친 후, 교회에 모여서 각자가 가졌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기 다른 각오와 기대감을 가지고 비전축제에 참가했다. 전도의 방법으로, 상점에 들어가서 말을 붙여보거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 같았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길 소망한다.

## 만화로 보는 목상



여름이 찾아 오면 종종 폭우로 물이 범람하여 댐이 무너지곤 합니다.  
우린 "고난"이라는 흥수 앞에 때때로 무너지곤 합니다  
물이 범람 하지 않기를 바래야 할까요?  
댐을 더 높이 쌓아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를 멎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댐을 더 높게 쌓는 일입니다.  
믿음의 "댐"을 쌓으십시오.  
어떤 문제도 이겨 낼 수 있도록.

<http://blognaver.com/illustwindow>

목상하는 그리스도인! 예수사람 아자!

## 비전 축제 특집



오늘 만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사랑에 갈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야위고 마른 할머니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오랜 시간 외로우셨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요즘이지만, '정말 진실 된 사랑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겠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가까운 곳에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부끄러움만 생겨났다.

오늘 만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정말 아주머니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많이 했다. 교회에 다니시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능력들에 대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신다는 것들을 느꼈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옥죄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손을 잡아 드려야 할 때인 것 같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맡기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인 것 같다.